

# 살고 죽는건 물위의 거품이다



## 도우 스님

(도선사 염불선원장)

“이 밝으니 빠르게 쳐다보는 모습입니다.” 스님은 인도 남천축국 왕자였던 달마가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와 민중들과 친하기 위해 그들의 모습을 닮아간 속뜻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님께 여쭙보았다.

“선이란 화두를 깨쳐서 생사해탈(生死解脫)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제일 근본 목적은 생사를 초월하여 삼계윤회(三界輪廻)를 면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첫째, 보리심을 발하여야겠는데 보리심이란 무엇입니까? 인성이 무상함을 자각하고 생사해탈할 길을 찾아서 입산출가하여 선지식을 찾아서 참선수행(參禪修行)할 화두를 참구하여 간단없이 의심을 지어야 합니다.”

### 닭이 알 품듯, 고양이 쥐 잡듯

닭이 알을 품어 온기가 단절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하고 간절히 화두를 들며 ‘이 뭐고?’가 의심이 잘 안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입으로 ‘이 뭐고?’ 소리를 내어서 의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뭐고?’ 같은 화두는 원래 인도에서는 없던 용어입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요, 가르친 바도 없습니다.

인도에 없는 연구술어가 중국에 전래되면서부터 1700공안(公案)이란 화두를 처음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선종의 일체종에서 간화선으로 화두를 사용하지만 조동종에서는 목조선으로 화두를 의식치 않는 묵조좌선(默照坐禪)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화두는 무엇입니까, 육조 스님께서 상당법문(上堂法門)을 하려고 하는데, 남양외왕 선사가 대종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육조 스님이 ‘이 무슨 물건이 들어오는지?’ 하니 남양 스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공공대다가 8년이 지나고서야 ‘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남양 스님이 8년이 지나는데 동안 ‘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고?’ ‘이 뭐고?’ 이 대목이 화두의 시작입니다. 어떤 수좌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조주 스님이 ‘물 앞의 잔나무 나라’ 한 이 뜻을 알면 화두가 필요 없지만 모르면 화두를 참구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지어 나가되 그 하는 모양이 흡사 닭이 알을 품어 온기가 단절이



불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도우 스님. 스님이 도선사 호국참회원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부귀영화는 그 모두 뽀람의 꿈이요, 모이고 흩어짐과 살고 죽음은 물위의 거품이다. 극락세계에 노니는 마음 그것 하나 말고는 생각하면 추구할 일 한가지인들 있겠는가?’

도우(道雨)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앞면에 붙어있는, 대각국사의 천 스님이 해인사를 떠나면서 남긴 시(詩) 한수가 유난히 눈에 띈다.

1947년, 성철·자운·보문·우봉·창담·향곡·월산·종수·보경·해암 스님들 20여 명의 스님들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원력을 세우고

수행에 진력했던 봉암사 결사(結社)에 동참했던 스님은 현재도 밝은 선지(禪旨)로 사부대중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스님의 좁은 방에 들어서니 달마 그림이 즐비하다. 스님은 대뜸 붓을 들더니 달마도를 그렸다. 스님의 달마도는 유난히 자비롭다. 웃음을 머금고 있는 원만한 모습의 달마이다.

“요즘 사람들이 그리는 달마 그림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달마도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 선사는 성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은 소림굴에서 9년 수행한 달마선사가 추우니까 거적을 덮어쓰고 날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6>



###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옛날 너무나도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 다. 어느 날 아주 큰 부잣집에서 스님들을 초청 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하였 습니다.

‘나도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이나 좀 얻어먹어 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곳으로 달려갔습 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인은 남부럽지 않은 부잣집 사람들이 저마다 먹을 것을 들고 와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전생에도 이런 공 을 쌓아서 이번 생애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 런데 지금도 저렇게 복을 쌓으니 다음 생애는 정말로 훌륭하고 부유하게 태어날 것이다. 나는 과거에도 복을 두지 못하여 지금 세상에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복을 짓지 않으면 미래 세상에는 더욱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 것 이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울 음이 북받쳤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여인은 생각 해내었습니다.

“그래, 내가 전에 퐁 속에서 동전 두 퐁을 주운 것이 있지. 정말 아쉬울 때에 쓰려고 잘 감춰둔

여인은 곧 불탄에 차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두 퐁을 보시했을 때에는 몸소 나를 위 해 축원하더니 오늘은 귀중한 보배를 가득 싣고 와서 보시했는데도 날 위해 축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여인의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그 큰스님이 여인을 만나자고 칭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를 의심하고 있군요. 부처님 법에서는 오직 착한 마음을 귀하게 여길 뿐 진 귀한 보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인께 서 지난번에 두 퐁의 돈을 보시했을 적에는 착 한 마음만이 가득 하였는데 지금 귀중한 보배를 보시하면서는 나(我)라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합 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 축원 하지 않는 것입니다.”(잡보장경 제4권)

며칠 전 반야경에 관해 짧은 강의를 하면서 보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면 그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공한 것 이다’라는 반야의 세계에서는 무주상보시(無住 相布施)여야 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깨끗해야 하는 것, 그런 무주상보 시가 보시바라됩니다. 바라들이란 ‘완성’ 이 라는 의미를 지녔으니 보시바라되는 ‘보시의 완성’이란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저의 설명을

## 동전 두 퐁 한량없는 맘으로 보시했던 거지여인 왕비된 후 풍족하게 보시하고 교만에 사로잡혀

그 돈을 이제 스님들에게 보시해야겠다.’ 거지여인은 스님들이 공양마치기를 기다렸 다가 그 돈을 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스님이 천히 그 보시를 받고는 몸소 그 여인을 위해 축원을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공양올린 음식 까지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기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보시한 과보를 얻는다.’

그 뒤에 왕의 눈에 우연히 들어서 거지여인은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여인은 단 한순간이라 도 그때의 보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복의 과보를 얻은 것은 돈 두 퐁을 스님에게 보시하였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나의 은인임에 틀림없다.’

그러하여 왕에게 칭하여 스님들의 은혜를 갚 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커다란 수레에 음식과 귀중한 보배를 가득 싣고 스님들 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그때의 큰스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아래 스님을 그 여인에게 보내 축원하게 하였습니다.

들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였습니다. ‘보시를 완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가진 것을 다 주 라는 말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무주상보시의 뜻을 알고 싶은 분은 앞에서 소개한 <잡보장경>에서의 여인과 스님의 대화를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정갈하고 푸 집하고 거창한 보시를 보고 부러워하고 기뻐하 는 마음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간절 한 소망을 담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남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보시의 선업과 즐거운 과보를 알고 난 뒤의 우리 마음 입니다. 착한 업을 지었으면 저절로 즐거운 과 보가 따를 것인데 어찌하여 눈앞에서 과보가 나 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미는 것을 받아주기만 해도 고맙고 감격스러 워하였던,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은 어디로 도망 갔을까요? 그 마음을 빨리 찾아와야 하겠습니 다. 그 마음으로 보시해야 무주상보시가 될 터 이니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대학교 명예교수)

滿

行

靴

상표등록 제614981호  
의정출원 제35872호

극세사 (만행화) \*가격: 80,000원 \*규격: 215~290(mm)  
망사 (만행화) \*가격: 60,000원 \*규격: 215~290(mm)

● 단화 특징: 만행 및 포행시 단정형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단화 색상구분: 스님용 - 회색, 흑, 백 / 신도용 - 흑, 백

제조원: 벽산아트  
만 행 회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02) 927-5715  
H.P: 011-9000-5715  
주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농협 063-12-250427 예금주: 구자민

과학으로 탄생시킨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 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동 지역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 종 열	051)632-0064 / 010-7211-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호남지사	광주·전남일원	이 준 엽	062)375-9986 / 010-9692-3536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대전지사	대전 / 옥천	해철스님	042)257-0161 / 011-9422-8453
울산지사	울산 / 경주	서병수	052)272-0909 / 011-862-5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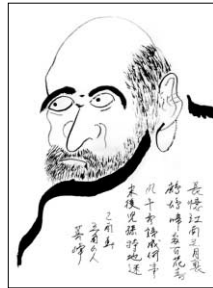
되지 않아야 하고 고양이와 쥐를 잡으려고 한 눈 팔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응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요즘 자기가 확철대오(確徹大悟)하였다고 생각 하는 스님들이 많은 것 같다. 스님은 “전국에 있는 선지식에게 인가를 받아 확철대오한 줄만 알고 지내다가 우연히 질병에 걸려 앓다보면 공부하였던 도력은 하나도 없고 아픈마음 뿐이요. 앓음알이는 다 어디로 가고 남은 것은 수척한 몸이다. 아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의 공덕을 생사초탈에 두어야 확철대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대오(大悟, 큰깨달음)가 18년이요, 소오(小悟, 작은 깨달음)는 부지기수라는 대해 스님 신상담을 얘기했다.

**단전호흡하며 의식 지어가야**

“대혜 종고(大慧宗杲) 선사는 워낙 지혜가 출중하시고 기봉(機峰)이 납달리 예민하시어 늦게 만난 원오 스님의 법답과 문답에 조금도 막힘이 없이 잘 응화였습니다. 하지만 원오 스님은 종고 스님을 인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혜 스님은 원오 스님을 원망하고 지냈습니다. 대혜 스님은 자기의 깨침에 더 이상 깨칠 것이 없는데도 원오 스님이 인가를 해주시지 아니하니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원오 스님께서 대혜 스님을 불러놓고 ‘자네는 부처의 경계는 들어갔지만 대(魔)의 경계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공부를 더 하여야겠네.’ 하고 인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대혜 스님은 ‘저는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무슨 공부를 합니까?’ 하니 원오 스님이 ‘무의언구 시대병(無疑言句 是大病,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고 하였습니 다. 대혜 스님은 자기는 확철대오하여 더 이상은 할 공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대 선지식이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 라니 그 말씀을 듣고 ‘천하 선지식이 다 속였지만 오직 스님만이 저를 속이지 아니하였으니 제가 다시 살아남으면 스님 법에서 맹세코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화두를 의심하여 생사대사를 해결



홍경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화스기체가 들어있는 도우 스님의 달마도

하였습니다.” 스님은 “요즘들어 참선 수행하는 불자들이 많은데 정확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수행법을 자상하게 일러 주었다.

“먼저 가부좌를 단정히 하고 앉아 두 손을 겹쳐서 왼쪽 손은 위로가고 오른쪽 손은 그 손바닥 아래에 포개놓고 엄지손가락을 마주 대하여 꼭 쥐고 생각은 배꼽 밑 단전에 둔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배꼽 밑에 둔 단전에서 호흡하도록 하면 서서히 화두를 속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꾸 의심해 나가면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 경계가 선의 경계가 아닌가.’ 하고 딱 생각을 내지 말고 화두를 들어 생각하고 의심을 지어가야만 공부가 되니 깨닫기 전에는 딱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두가 안 잡힌다고 억지로 무리하게 해서는 상기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단전에서 호흡하고 의심을 지어 나가면 상기병이나 소화불량등 일체병은 근절할 수 있습니다. 설사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더라도 장차 깨칠 인연을 지어놓았으니 언젠가는 확철대오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수행 할 때는 취미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화두드는 생각과 마음을 취미에 빼앗기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지 않을 때는 묵언(默言)으로 돌아가 선시(禪詩)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은 생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을 위해 참선만이 깨달음의 길이 아님을 얘기했다. 스님은 불자들이 근기에 따라 참선과 염불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했다.

**평소 묵언하고 선시 읽어라**

“간혹 불자들 사이에 오직 참선수행만이 한국 수행법의 전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성 지안 선사 이후 한국에서는 염불선이 흥했습니다. 예전의 큰스님들도 염불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나와 부처가 차별이 없 이 같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청정지 못하고 부처와 같지 않으니 결국은 마음을 깨닫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직지사 천불선원을 시작으로 문경 봉암사, 대승사, 법주사 복천암, 모향산 두타암 상원사, 금강산 유점사 표훈사, 천성산 내원사 등에 방부를 들이며 수행에 전념할 때였지요. 어느 날 금강산에서 내려와 상주교당에 들렀더니 ‘나무 아미타불’ 염불소리가 쩌렁쩌렁해요. 그래서 내가 ‘예 선을 하는 사람들이 염불을 하느냐’ 했더니 성철 자운 우봉 성수 종수 청하 스님이 이미 대승사 무량수전에서 1000배 정토발원을 하고 왔다고 합



육조 혜능대사의 글을 읽고 있는 도우 스님.

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해야지요’ 하고 500배 하고 정토발원했습니다.”

스님은 시간이 없거나 직장에 다니는 불자들은 염불선을 하라고 권했다.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나무아미타불 염하는 이 높은 원가’ 라는 화두를 타파하라고 했다.

“나무아미타불이 깨닫기 전 법장 비구로 48원을 세워 누구나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생각하여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발원하면 기필코 극락정토에 간다고 하였으니 미타정토삼부경을 부지런히 독송 하시기 바랍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일체유심을 깨치시고도 화엄종, 해동종을 개종(開宗)하시면서 구경 회향은 서방 극락세계로 돌리고, 서민 대중들도 염불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권고하셨습니 다. 화엄종의 의상대사께서도 부처사 무량수전을 짓고 법당 정면에 무량수불을 모시지 아니하고 서방에 모시어 자연스레 서쪽 아미타불님께 예배하셨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 간화선이 한국불교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불발의 목적과 의식이 아미타불 극락정토(阿彌陀佛極樂淨土)로 구경 회향 하는 염불 수행이었습니다. 꼭 간화선이 염불수행보다 수승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선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참선과 염불을 병행하여 부지런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봉암사 결사 참여...한평생 생식·묵언 생활화**

**도우 스님은** 보봉도우 스님은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던 세수 85세의 노스님이다. 젊은 시절부터 생식과 묵언으로 생활해온 스님은 대중들 앞에도 잘 나서지 않았다. 스님은 탁월한 기억력으로 봉암사 결사를 비롯한 근대 고승들의 행적등 근대 불교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피상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님은 일반 불자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참선수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에 선과 염불을 결합한 염

불선을 권하고 있다. 스님은 또 서예 분야에서 이름 높은 맥문(麥門) 홍경 스님(1899-1971)으로부터 춤을 추듯 유연한 하소기(何紹基, 중국 청나라 서예가) 서체도 전수하고 있다. 도우 스님은 1922년 경북 문경 동로면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13세인 1934년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제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40년 문경 김룡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42년 직지사 천불선원

초안기 이후 44년부터 문경 봉암사, 모향산 대승사, 고성 문수암, 창원 성주사, 해인사 퇴설당 등에서 청담·성철스님 등과 안거에 들었다. 48년 문경 봉암사 결체에 참여하여 <공주규약 제정>을 통한 한국불교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스님은 52년 문경 봉암사 주지를 시작으로 선산 도리사 주지, 영주 부석사 주지,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와 조계종 정화대표자회의 비구족 비상종회의원, 감찰원 감찰원장을 역임했다. 62년 청담 스님을 법사로 건당한 스님은 현재 삼각산 도선사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즉시불> <사바가 정도도 정토가 사바>가 있다.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진철 스님**

충북 괴산의 공림사(公林寺)는 내가 출가한 절이다. 전쟁의 상처로 거의 폐허가 된 것을 스님들의 피와 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절이다. 절 뒤의 낙영산(落影山)은 정선(鄭善)의 인왕제색도(仁王齋色圖)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산으로, 부도림과 은화한 바위 선이 일품이다. 내가 행자로 있던 시절, 공림사에 있는 스님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두 분의 특이한 스님이 기억된다. 특이하다기 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열심히 사는 수행자들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스님은 ‘삼전배 스님’이다. 스님은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방에 들어앉아

기를 치우거나 물건 나르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맡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던 스님의 얼굴은 늘 평온하고 빛이 났다. 어떤 화의 화상이 남아와도 스님은 그 화상을 꽃으로 만들어 날려 보냈다. 그러나 진철 스님의 한결같은 수행으로 차차 주위의 스님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스님은 일체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바깥에 자주 기웃거리다 보면 다른데 신경이 팔려 공부 가 안 된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다른 스님들은 선방에 삼개월동안 머물러 있다 해제를 하는 날 모두 결망을 싸들고 나가도, 진철 스님은 일체 산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내가 원주를 불 때, 어떻게 알았는지 진철 스님의 속가집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나는 그 내용을 전하러 선방으로 갔다. 그러나 스님은 전화 받기를 거절하며 끝내 받지 않았다. 진철 스님은 한때 3년 동안 묵언(默言)을 하며 살았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목이 퇴화해서, 3년이 지나고 말을 시작하



그림·문병성

주력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스님이 삼전배만 별명을 얻게 된 계기는 공림사로 오기 전에 실제로 법주사에서 3000배 수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삼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3000배를 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무릎에 굳은살이 박혀서 맨 바닥에 좌복 없이 절을 했단다. 얼마나 열심히 절을 했는지, 주위에서 보면 확인 들의 말을 들리자면, 절한 자리가 파일 정도였다니 대단한 정진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생각했던 도(道)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망한 스님은 이곳 공림사로 들어와서 수행 방법을 바꾸었다. 다음은 진철 스님이다.

**해제미 고스란히 이웃에게 3년 묵언...선 목소리로 변해**

자 제 소리를 못 내고 선 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스님의 목소리는 현재 선 소리로 굳어버렸다. 스님은 그 와중에도 오후(午後) 불식(不食)을 하였다. 즉, 오후 식사를 하지 않고 하루 두 끼만 먹는 것이다. 그러다 몸이 좋아지면 그 두끼에서 한 끼를 거르고 하루 한 끼만 먹기도 했다.

스님은 재물(財物)에 대한 결벽증(結)을 가지고 있었다. 해제가 되면 만행을 나가는 선원 스님에게 삼 사십만 원 정도의 해제비가 주어진다. 그러면 스님은 받은 돈을 원주 소임을 보고 있던 나에게 봉투째 고스란히 가져왔다. 자기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그 돈을 쓸로 바꿔서 인근에 사는 복지단체에 기증하곤 했다. 한번은 손수건에 찬 심 원자력 동전을 몇 개 주워가지고 왔다.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왔으니 살림에 보태 쓰라는 것이다. 이렇게 진철 스님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극히 기피했다.

진철 스님은 이제 공림사를 떠나고 없다. 어느 스님이 강원도에 있는 허름한 토굴을 스님에게 기증하여 그곳으로 떠났다. 진철 스님은 아마 강원도 토굴에서 평생을 보낼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낙영이 지는 가을날 공림사에 갔었다. 절 앞 느티나무에서는 서리를 맞은 이파리들이 무수히 떨어지고 있었다. 진정으로 공부하는 수행자로 존경했던 진철 스님이 없어서인지 왠지 나에게서 쓸렁해 보였다.

■ 청원 현암사 총무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파미르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마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의 접촉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가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사는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사와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기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개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충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